

# 혼인을 줄고 스몰웨딩·온라인 업체 등장에 '침체의 늪'

## 사라져가는 광주 웨딩의 거리...원인과 전망

광주 웨딩의 거리 등 기존 웨딩산업이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원인으로 ▲지속적인 혼인율 감소 ▲과도한 결혼비용 부담 ▲20~30대의 결혼인식 변화 ▲스몰웨딩·셀프웨딩 등 새로운 결혼문화의 등장 ▲온라인 컨설팅 업체와의 경쟁 구도 등이 꼽힌다.

◇5년 새 2200건 ↓...줄어드는 웨딩마치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혼인 건수는 최

근 몇년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13년 8800건이었던 혼인 건수는 8200건(2014년)→7900건(2015년)→7500건(2016년)→7100건(2017년)→6600건(2018년)으로 5년 새 25%(2200건) 가 줄었다. 지난 5년간 광주지역 혼인 건수 감소율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감소율(20.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광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의 경우 지난해 혼인 건수는 7400건으

광주 5년새 혼인건수 25% 줄어

'과도한 소비' 결혼식문화도 영향  
지자체와 소외층 무료 결혼식 등  
상생 노력으로 웨딩산업 살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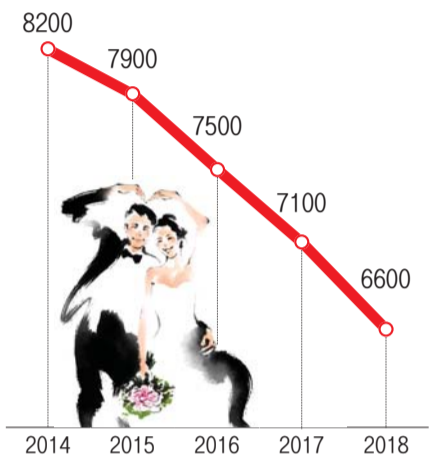
로 광주보다 800건이 더 많았다.

이처럼 해마다 줄어드는 혼인 건수는 취업과 내 집 마련이 시급한 20~30대에게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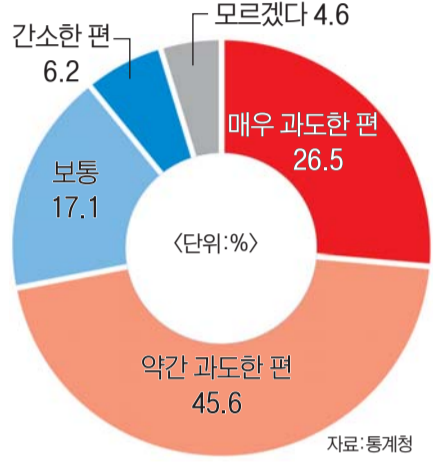
지난 11일 취업정보사이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30대 1142명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2030세대의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결혼이나 자녀출산은 안 해도 된다'고 선택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71.7%)은 '결혼은 안 해도 된다'고 답했으며, 자녀출산에 대해서도 '안 해도 된다'는 응답자가 절반(57.4%)을 넘어서었다. 미혼인 응답자 10명 중 4명(38.3%)은 '앞으로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답하기도 했다. 또 현재 자녀가 없는 응답자 중 39.6%는 '향후 자녀출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지역 혼인 건수



### ■광주지역 결혼식문화 인식



광주시 동구 서석로 '웨딩의 거리'에는 40여 개 웨딩숍이 성업했지만 점포가 절반 정도로 줄었다. 이 거리 건물 4곳에는 '상가 임대' 딱지가 나붙어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지자체 지원·감시로 심폐소생술' =광주지역 기존 웨딩업체들이 외면받는 배경에는 '부풀려진 결혼시장'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한 번 하려면 기본으로 250만원이 든다. 이 비용에서 자연스러운 일상을 카메라에 담은 스냅 사진이나 가족 촬영을 추가 선택하면 2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지난해 통계청이 광주지역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결혼식문화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 '매우 과도한 편'과 '약간 과도한 편'이라는 답변이 무려 72.1%에 달했다. '약간 간소한 편'과 '매우 간소한 편'이라는 답변은 각각 5.1%, 1.1%에 그쳤다.

최근 들어 최소의 비용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스몰웨딩', '셀프웨딩'을 택하는 예비 부부가 늘고 있는 것도 기존 웨딩업체들의 설 자리를 비좁게 만들고 있다. 온

라인 상에서 주로 활동하는 웨딩 컨설팅 업체나 개인 플래너들은 고객에게 50% 할인, 100만원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웨딩숍들은 컨설팅 업체들이 광고비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대금결제를 제때 하지 않아 애를 먹으면서도 '올해 겨우먹기' 식으로 고객 압선을 받고 있다.

충장로 상권 붐기도 웨딩의 거리 고객 감소 이유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올해 1분기 충장로·금남로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을 조사한 결과 중대형 상가(연면적 330㎡ 초과) 공실률은 13.8%에 달했다.

김미숙(52) 사단법인 한국웨딩협회 대표는 "광주지역 웨딩산업은 주요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열악한 형편이어서 10여 년전 광주에 점포를 내리다 포기한 기억이 있다"며 "지자체 등이 임차료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거나 소외계층·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무료 결혼식을 함께 주최하며 협력하는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컨설팅 업체의 '황포'에 가까운 수수료 빼돌리기와 과대광고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감시 체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김정은·리설주·김여정 평양공항 총출동 시진핑 부부 영접

1박 2일 방북 일정 시작

공항·도로 수습만 인파

방북 외국정상 중 최초로

금수산태양궁전서 환영 인사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하루 전인 지난 19일 평양 여명거리로 풍선으로 장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평양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북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나가 시 주석을 영접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시 주석과 평리위안(彭麗媛) 여사는 이날 정오(현지시간)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해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의 영접을 받았다.

공항에는 또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 리호호 외무상, 리만건 당 조직지도부장, 리수용 당 중앙위원회 국제담당 부위원장, 최희당 부위원장,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리몽남 내각 부총리 등 북한 고위층이 대거 참

석했다. 그리고 김영철 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은 일부 국내언론이 속칭설을 보도했지만 지난 2일 김 위원장 부부와 함께 군 공연을 관람하며 견재를 확인한 데 이어 이날 시 주석의 국빈방북 영접 행사까지 동행해 여전한 위상을 드러냈다.

공항에는 시 주석을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걸렸고, 1만명이 가까운 군중이 나와 꽃다발을 흔들고 환영 구호를 외쳤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시 주석은 비행기에서 내려 김 위원장과 인사 후 북한 고위 관리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이어진 환영식에서는 21발의 예포

소리와 함께 군악대가 양국 국기를 연주했고, 두 정상은 북한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시 주석은 환영식 후 공항을 나와 오토바이의 호위 속에 평양 시내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으로 이동했으며, 도롯가에도 수십만명의 군중이 양국 국기와 꽃을 흔들고 구호를 외쳤다. 시 주석은 북한 도심 려명거리부터는 김 위원장과 함께 무개차로 걸아갔고, 거리의 환영 인파를 향해 손을 흔들며 화답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도착했을 때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는 수만개의 풍선이 하늘로 날아올랐다고 인민일보는 보도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함께 북한 당정 지도부와 평양 시민대표 등의 '경의'를 받았는데, 외국 지도자가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경의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이 행사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김재룡 내각 총리를 비롯해 박광호·김평해·오수용 당 부위원장, 박대성 최고인민회의 의장, 태형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최무일 인민보안상, 정경택 국가보위상, 김덕훈·리주오·동정호 내각 부총리, 김능오 평양시 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객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제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회계·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으로 수급하고 보조금을 착복했다"며 "요양기관의 회계·감독·처벌 규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며 부패 척결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정경두 국방, 北어선 귀순사건 대국민 사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일 오전 11시 국방부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진입과 관련해 일선 부대가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연합뉴스

1566-9988

8 5 1  
116 40 point

1 6 5 2 4  
110 20 point

6 8 2 4 7 5 8 1  
108 14 point

2 5 1 6 4 9 7 8 3  
102 12 point

1 3 0 7 5 8 4 9 2  
96 10 point

2 4 6 3 7 1 2 8 0  
90 8 point

4 6 2 8 1 0 9 7 3  
84 6 point

2 7 6 2 1 4 9 0 2  
78 5 point

4 5 7 8 9 0 0 0 0  
72 4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리점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트윈스틸)